

한 줌의 쌀 예수님 뭍으로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이 세상 모든 청소년들의
파랑새가 되어주세요



소리아 메이의
외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



저에게는 귀여운 외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소리아 메이(Soriya Mey)’, 12살입니다. 소리아의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군요. 이 아이의 아빠는 ‘소리아’의 엄마를 사창가에 500달러에 팔아 버린 것으로도 모자라 ‘소리아’까지 100달러에 팔려고 했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 모진 사위로부터 손녀를 데려와 직접 키우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우린 너무 가난하고 늙었지요.** 거기다 피부병까지 심하게 앓고 있는 외손녀가 혹시 자기 엄마처럼 에이즈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외손녀를 메리놀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놀에서 우리 손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와 떨어져 메리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San Som Kosal 초등학교 5학년생이 되었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안일을 돕고 다른 아이들까지 돌보는 ‘소리아 메이’는 이제 자신의 삶을 매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러분들의 나눔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캄보디아 메리놀회는 1996년부터 캄보디아 HIV/AIDS 감염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지역정부, 병원, NGOs, 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가정에 기반한 보호 및 치료와 예방교육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 적절한 영양섭취, 안전한 주거확보, 감염환자들의 자존감 확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스스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ARS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이 세상 모든 청소년들의 파랑새가 되어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1 교육지원 사업 현황

본부는 가난과 저개발로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건립, 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함께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티 지난해 1월12일 대지진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아이티 중장기 재건 및 재활을 위해 현지협력단체인 아이티 카리타스와 포르토프랭스 카리타스와 함께 총 63만달러 규모(본부 33만달러+브라질 카리타스 30만달러)로 10개 학교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진다면 1,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학교 주변 공동체 역시 활기를 띠며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동북아 최고의 에이즈 감염율을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본부는 2010년도에 이어 캄보디아 프놈펜과 칸달 지역에서 빈곤한 에이즈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24개 기숙사 1,500여명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헌신적인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에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지금보다 밝은 내일의 희망을 찾아 훨훨 날아가도록... 파랑새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파랑새입니다.



‘9월은 헌미헌금 봉헌의 달’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74.3488 ARS 060.700.1117(한 통화당 3,000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1년 상반기 사업보고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인도적 구호

본부 국제협력부는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홍콩,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케냐, 부룬디, 멕시코 등 총 10개국 21개 프로젝트에 총 559,143,198원을 전 지구적 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지원했습니다. 또한 강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일본 주민들의 인도적 구호를 위해 총 381,623,142원을 지원했습니다. 본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신 협력기관들과 특별히 주도적으로 참여해주신 현지 지역 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부를 지지해 주시는 후원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명나눔운동



1. 장기기증희망자모집사업

故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2주기를 맞아 본부는 올 한해 범국민 장기기증 캠페인 '희망의 씨앗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는 이 캠페인을 통해 전국 12개 교구에서 2011년 8월 현재 11,492명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사업

본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되어 2011년 상반기 동안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생사목부와 전국가톨릭대학생연합회, 한마음혈액원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펼친 결과 올해 목표 3,000명의 92.8%인 2,784명을 모집했습니다. (2003년~2011년: 28,265명 모집) 그리고 본부의 모집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69명의 환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나눔이 생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생명나눔에 동참해주신 기증희망자, 기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환우지원사업

본부는 2011년 상반기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난치병 환자 및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 사각지대 환우와 가족들에게 진료비 4,920만원을 지원하여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했습니다. 하반기는 더욱 지원을 확대해 환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한 2011년,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상반기 동안 본당 주일학교, 일반 중·고교를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등 10여 곳, 약 4,800여 명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을 올해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생명친구가 되어주세요' 자살예방캠페인에 참여하여 생명수호천사로서 자살의 심각성과 자살예방활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명동생명문화축제' 여러분의 재능기부로 빛내주세요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명동생명문화축제를 개최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의 시작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2011년 10월 8일 (토) 13:00 ~ 16:00
- 장소 서울 명동 및 을지로 입구역 일대
- 관련문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727-2296 (담당: 전영주)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3079.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참여방법 하나. 참여기부 자살예방캠페인 및 문화행사 진행 도움
둘. 재능기부 문화공연시 공연에 참여해 주실분(밴드, 댄스, 기타 등)

하루100원 모으기

51,255명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1년 8월 31일 현재)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http://www.c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하나은행 850-910006-09104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함께하는 사회사목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5주년 기념행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35주년을 맞이하여 본회 설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9/30(금) 16시, 가톨릭회관 7층강당
- 문의 02.727.2234

2011년도 서울대교구 본당사회사목
지원사업 설명회

오는 10월 중 가톨릭회관에서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을 대상으로 본당사회사목 지원사업을 개최하여 사업 취지 및 일정안 내,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일시 2011년 10월 중
- 지원영역 기획사업비(지역사회 연대사업, 구역 내 이웃지원사업) · 지구 단위사회사목사업

• 지원사업 관련 서류제출기간

2011년 10~12월 중

- 문의 02.727.2238~9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기원 콘서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사형폐지 소위원회 주최로 시·노래 콘서트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손님과 노래손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일 총 5회 연속 개최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공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9/30(금) 19:30
(이야기 손님 - 김여진, 노래 손님 - 백자, 시와)
- 장소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 1층
- 문의 02.921.5093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후원회원들을 위하

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가톨릭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사형수, 출소자 및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미사입니다.

- 일시·장소 10/10(월) 10:20, 가톨릭회관 3층

환경사목위원회

강(江)을 위한 수요 명동 생명·평화미사

환경사목위원회는 사회사목부 신부님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생명의 강을 위한 생명·평화미사'를 봉헌 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자연과 생명을 섬기고 보호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와 뭇 생명의 복음자리가 되어준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미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장소 매주 수, 낮 12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문의 02.727.2272~6



한마음한몸 월간지 제 100호 발행!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1988년 5월 15일 창간된 한마음한몸은 동본부 공식 월간지 '한마음한몸'이 2011년 9월, 제 100호를 발행했습니다. '한마음한몸'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의 나눔이야기를 담아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교회 내 나눔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내 뿐 아니라 대국민적 나눔문화를 선도하며 새로운 삶의 정신적 지표를 제시하는 국민나눔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간 100호를 맞이하기까지 보내주신 후원자와 신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한마음한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듭시다!

아기의 돌잔치 · 생일 · 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김도현 야고보

(2010.07.25생 父 김재철/ 母 김은영),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지현

(2010.08.16생 祖父 박인준 스테파노),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민아

(2010.09.01생 父 최신용/ 母 김은희),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준서 베드로

(2010.05.31생 父 최승원/ 母 김희정),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윤서 다윗

(2010.05.31생 父 최승원/ 母 김희정),
5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서준우

(2011.05.03생 父 서동희/ 母 김효숙),
20만원 (자궁출생 빈곤 청소년 돕기)

● 최을

(2010.09.11생 父 최영기/ 母 이윤경),
36만5천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채원

(2011.05.06생 祖母 조영실 뿌리나),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하윤

(2010.08.15생 父 최준혁/ 母 김정인),
2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보민 가브리엘라

(2010.03.14생 父 김성원/ 母 안혜준),
3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예준

(2010.09.16생 父 조승빈/ 母 안영경),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지아 그라시아

(2010.08.05생 父 홍윤기/ 母 지아임),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조호연 베르나르도

(2007.08.20생 父 조남현/ 母 김자영),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현우

(2008.03.26생 父 이창제/ 母 정영아),
2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